

指定港 확대, 投資果敢히 漁村定住圈의 中心 되게

韓國 漁港 協會

먼저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수산업발전과 복지어촌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나라는 그동안 우리앞에 산적한 온갖 시련과 역경을 우리 민족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남다른 근면성과 창의력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른 88 서울올림픽 이후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피부로 절감하면서 뿌듯한 긍지를

갖고 각자 맡은 일에 매진한 결과 이제 우리 수산업도 수산물수출 세계 4위, 수산물 생산 세계 7위라는 수산대국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산업의 기본시설인 어항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어항인들 역시 노태우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천명하신 '위대한 서해안시대'는 어항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굳게 믿고 미력이나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30일 충남 보령에 있는 무창포 어항을 직접 방

문하여 "임기내 전국 주요어항 61곳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325곳의 소규모 지방어항 개발을 위해 정부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는 노대통령의 말씀에 크게 고무되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음으로써 국가기간산업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새삼 어항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어항을 어선의 정박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각국은 수산

수산업생산 및 수출동향

	62	77	82	86	87	62/87 (%)
생 산 량(M/T)	470	2,421	2,644	3,660	3,332	709
수출량(백만\$)	12	703	947	1,384	1,731	13,879
어가소득(천원)		1,392	3,279	5,402	6,166	443

자원 자국화를 위해 앞다투어 200 해리 영해를 선포하면서 종래 어항의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항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근거지로서 유통가공체제 확립 뿐만 아니라 국민관광휴양지로까지 그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역시 장기적인 국가경제 발전 측면에서 해마다 대폭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도 어항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지 못한 탓으로 '89년의 경우만 보아도 경제기획원에 당초 요구했던 어항관련예산 714억원이 177억원이나 줄어든 537억으로 책정되는 등 너무도 미흡하기 짝이 없

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수산부문 예산 중 단위사업예산으로는 가장 많다고는 하나 수산관계 예산총액의 34.8%(89년)에 불과한 것으로써 가까운 일본의 수산관계예산중 어항관련예산 61.1% 2,013억엔(88년)과 비교한다면 수산대국을 표방하기에 절대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답답한 현실을 저희 어항협회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부득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는 각종 다양한 요구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간곡한 건의의 말씀을 올리오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어도 어항관련예산이 수산관련예산의 50% 이상은 차지할 수 있도록

어항투자확대를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어항법에 의한 지정항을 대폭 확대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항이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관련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항을 국민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항의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해 그 기능을 과감히 전문기관에 위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러한 사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한 매년 어항관련예산이 수산관계예산의 50

수 산 관 계 예 산

사 항	연 도		
	1987	1988	1989
농림수산관계예산총액	13,211	15,193	15,893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1,165	1,216	1,544
어 항 관 계 예 산	455	464	537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농림수산관계예산총액) %	3.4	3.1	3.4
(어 항 관 계 예 산 총 액 /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39.1	38.2	34.8

국 민 총 생 산 대 어 항 예 산 대 비

	한 국				일 본				
	85	86	87	88	80	83	84	85	86
국민총생산	728,500	839,758	975,317	1,115,760	2,400,984	2,805,680	2,984,530	3,174,410	3,313,460
어 항 예 산	254	360	455	464	1,641	1,655	1,641	1,618	1,600
대 비 (%)	0.035	0.042	0.046	0.042	0.068	0.059	0.055	0.051	0.048

%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 항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漁船被害 해마다 무려723隻 漁港규모 작은데에 原因

우리 나라의 어항수는 모두 1,941 개항이나 이 가운데 이용범위가 전국단위인 1·3종 어항이 전체의 3.1%인 61개항이고 이용범위가 지역단위인 2종어항이 전체의 17%인 330개 항으로 어항법에서 지정한 어항은 391개항에 불과할 뿐 활용도나 수용능력,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소규모 어항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어항이 어항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인 탓으로 항간거리 역시 일본(11km)의 3배(33km)나 되기 때문에 황천시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엔 안전항으로의 피항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이 '62년도는 16만2천^G/T에 불과하던 선부량이 '87년 현재는

91만2천^G/T로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항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어선 피해가 매년 평균 723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의 개발은 곧 국가 기간산업의 개발로 국토개발인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다른 어떤 산업보다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폭풍·해일로 야기되는 엄청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어항법에 의한 지정항 확대와 과감한 투자확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 선 세 력 추 이

	62	77	82	86	87	62/87 (%)
척 수	45,504	66,506	86,515	93,037	94,155	207
톤수(천 ^G /T)	162	683	808	884	912	563

한국과 일본과의 어항실태

구 분	해안선 길이	지정 어 항	항 간 거 리	시 설 상 황
한 국	km 12,800	개 항 391	km 33	'88년말 현재 101개 항 완공
일 본	32,940	2,946	11	'70년도 전 어항완공 정비사업(확장, 개량) 추진중

漁港開發率 他産業보다 뒤져 年間 1千億 정도 投資바람직

현재의 어항시설을 보면 '88년 말 현재 1·3종 어항은 61개항 가

운데 45.9%에 해당하는 28개항이 완공되고 개발률은 시설계획물량 완공 역시 65,790m에 대하여 64%인 42,330m에 그치고 있습니다.

2종어항 역시 330개항중 73개항만이 완공되고 시설물량 완공은 78,611m에 69,286m로 다른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비하여 개발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 1991년까지 현재 지정되어 있는 391개항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89년도 어항투자예산 537억원(지방비 37억원 포함) 수준으로는 도저히 2년 안에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계획기간내 기본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는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완공개념은 필요불가결한 계획상 제한적 의미의 완공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 완공을 위하여는 계속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일 뿐 아니라 앞으로 어항은 그 기능이 명실공히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지로 교통,

문화, 행정, 경제와 관련한 각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어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확실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어항관련시설 확충이야말로 어촌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항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어항투자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항개발현황

(단위: m, 백만원)

구분	총 계획			기시설('88말)			'89 계획			잔량('90~'91)		
	항수	물량	금액	완공항	물량	금액	완공항	물량	금액	항수	물량	금액
합계	391	144,401	537,176	101	111,616	286,711	16	7,063	53,706	274	25,722	196,759
1·3종어항	61	65,790	434,462	28	42,330	234,312	6	5,332	46,276	27	18,128	153,874
2종어항	330	78,611	102,714	73	69,286	52,399	10	1,731	7,430	247	7,594	42,885

'89 사업 계획

(단위: m, 백만원)

구분	시공항 완공항	물량	'89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93/16	7,063	53,706	49,991	3,715	
1·3종어항	28/6	5,332	46,276	46,276		
2종어항	65/10	1,731	7,430	3,715	3,715	

漁港에 새機能, 觀光·休養수요 附帶施設 투자 결들여져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어촌의 어업생산여건을 극복하고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생산체계의 고도화와 생산된 어획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항의 개발을 설정할 때엔 수산물생산의 보급 및 유통기지 수준에서 벗어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나가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휴양지로서 어항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은 어가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양관광시설과 관광부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항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어민들에게는 어업의 소득증대를, 국민들에게는 관광휴양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漁港관련業務分掌해야할 때 機能多樣化 능동 對處위해

어항은 종합적인 시설이므로 어항을 개발할 때엔 정밀한 설계과를 추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설계과가 항별 개발기본조사와 시설의 보호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어

항시설 개발을 중앙행정기관인 수산청에서 정책수립에서부터 조사, 설계, 감독,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자칫 능동적 대처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원활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항개발기본조사와 설계용역비 등을 대폭 확보,

일본국 제 7, 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사 업 명	7차정비계획(1982~1987)		8차정비계획(1988~1993)		8차/7차
	항 수	사 업 비 억엔	항 수	사 업 비 억엔	
수 축	480	12,000	490	13,100	1.09
개 수	870	5,000	920	5,500	1.10
국 부 개 량		1,500		1,700	1.13
계		18,500		20,300	1.10
지 방 단 독		300		400	1.33
조 정 비		1,300		3,400	2.62
합 계		20,100		24,100	1.20

일본국의 수산관계예산

(단위 : 억엔)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전년대비
사 항							
농 립 수 산 관 계 총 액	36,068	34,597	33,008	31,429	30,286	31,719	4.7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3,156	3,115	3,047	3,011	2,955	3,293	11.4
공 공	2,025	1,992	1,958	1,939	1,904	2,260	18.7
어 항 관 계	1,813	1,780	1,748	1,730	1,569	2,013	(28.3)
연 안 정 비	212	212	211	210	207	247	
비 공 공	1,131	1,123	1,089	1,072	1,052	1,034	-1.7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농 립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8.75	9.0	9.23	9.58	9.76	10.38	
(공 공 /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64.2	63.9	64.3	64.4	64.4	68.6	
(어 항 관 계 / 수 산 관 계 예 산 총 액) %	57.4	57.1	57.4	57.5	57.4	61.1	

※ 우리나라 1988년 수산관계예산대 어항예산 38.2%

주요 재정 사업 개발 륜

(%)

상 수 도	주택 보급 륜 (’89 목표 율 임)	도로 포장 륜 (국 도)	수리 안전 답 륜	어 항 시 설 (1·3 중)
74	70.1	83	74	64

※ 어항 시설 개발 륜은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의 1·3 중 항 기본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대 실적임.

이를 전문기관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감리토록 하는 것이 건설한 시공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날로 확대되고 고도화, 다양화되는 어항의 기능을 감안, 어항관리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어항 개발방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어항개발 방향으로 생각 하는 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과 투자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국가경제발전은 전혀 기대키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항관련예산이 일본 수준에까지는 못 따라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수산업 관련 예산의 50% 이상은 항시 확보되어야만이 수산대국을 향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어항관련예산의 대폭 확대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건의는 몇몇 어항인들의 사리사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어항을 둘러싼 세계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 이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어항인 모두의 절박한 심정에서 우려나온 것임을 깊이 통찰하시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어항발전을 위한 간곡한 건의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0년대 어항수요의 완전충족은 물론 국민의 소득원으로, 어촌의 정주생활권으로, 쾌적한 휴양지로 어항을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 유수의 수산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위선양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어항에 대한 과감한 대폭 투자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漁港 인식提高 時急한 課題 ‘水産大國’ 立地 흔들릴 憂慮

우리나라와 비교적 모든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어항개발과정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식량부족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국회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업의 생산기반시설인 어항개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1950년 어항에 관한 기본법인 어항법을 입법 제정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수립 현재 제8차에 걸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진행중인 제8차 계획을 보면 목표년도인 1993년까지 계획기간중 총 사업비가 무려 2조 4,100억엔(한화 12조 982억원)을 투입,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어항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88년도엔 어항법까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수산관련예산에 대한 어항관련 예산의 비중 역시 1983년 이래 평균 57%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1988년에는 무려 61.1%로 늘어나는 등 그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해안에 저절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재정사업 개발 륜 역시 도로포장 83%, 상수도 수리안전담 74%, 주택보급 70.1%에 비해 어항시설은 64%에 그치고 있어 어항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관련기관의 인식제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올린 세계 4위라는 수산대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는 수산업을 통